

에릭슨과 프로이드의 성격발달 이론의 비교 분석

김 경 희*

A study of comparative analysis about Eriksn and Freud

Kyung-Hee Kim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인간의 성격발달에 대한 고찰은 심리학의 주된 분야로 프로이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인간 발달의 각 단계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성격형성과 사회성 발달의 기틀을 5세 이전에 기반이 확립된다고 보았으며 특히 프로이드는 인생초기 경험이 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에릭슨 또한 생의 초기부터 나눈 단계이론에서 각 단계에서 완수해야할 발달 과업을 이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성향을 가진 인간으로 발달해 간다고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형성의 일반적 이론과 본 연구의 중심이론인 프로이드의 심리성격발달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발달을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성격형성 이론을 비교 고찰해 봄으로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II.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성격형성이론

1. 성격의 개념 및 성격 이론

1) 성격의 개념

성격(personality)이란 용어는 희랍어 “persona“에서 유래되었다. 고대 희랍 연극에서 배우들이 쓴 ” 가면 “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즉 성격의 기본적 의미는 인간의 피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이미지는 자기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공적 성격(public personality)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격은 매력, 사교자세, 인기, 성적 매력 등 대인관계의 생활에서 갖게 되는 사회적 특성의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격은 대체로 공격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등으로 한 개인의 전체적인 인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들이 정의하는 성격은 인격(Character)과 사회적 기술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성격이론에서는 성격이 좋다 혹은 성격이 나쁘다와 같은 표현은 하지 않는다.¹⁾

Mischel은 성격심리학이 인간의 사고와 활동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면서 그들의 삶의 조건들을 형성해 가느냐와 개인차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했다.²⁾ 성격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첫 번째 개인의 독특한 측면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이로 이해한다. 두 번째 여러 상황 속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행동 및 사고양식을 의미한다. 세 번째 개인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성격 이해는 인간 치료와 상담의 큰 역할을 한다.³⁾

성격형성에 있어서 유전적 영향을 생각하는 것이 성격의 생물학적 접근이다. 성격은 전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출생 후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격학자들의 견해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격은 유전과 자란 환경에서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Sheldon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두뇌의 내배엽형과 외배엽형, 중배엽형으로 구분하였다. 내배엽은 내장구조가 고도로 발달된 형으로 편안하고 낙천적이고 사교적이라고 규정했다. 외배엽은 근육이 섬세하고 약한 형으로 수줍어하고 내성적이다. 중배엽은 근육이 우세한 형으로 활동적이고 보람을 즐기며 성력적이라는 것이다.

1) L.A.젤리, D.J.지글러, 이훈구 역, 「성격 심리학」, 범문사, 1995, pp18-19.

2) 김정우의 9명, 「심리학 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92, p301.

3) 최정훈의 5명, 「인간행동의 이해」, 범문사, 1995, p281.

2) 성격이론

성격이론은 크게 정신분석이론, 특질이론, 그리고 행동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신분석이론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성격을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와 정신결정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은 인간이 의식하고 있는 정신생활의 극히 일부로 규정하고, 의식 밑에 거대한 무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성격에 있어서 본능(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명명하여 설명하였다. 프로이드는 본능(id)과 정신적인 구성요소인 자아(ego)와 사회적인 구성요소인 초자아(superego)로 본 것이다. 이드(Id:본능): 신생아는 이드만 가지고 생활하므로 본능적인 쾌락의 원리(pleasure principle)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이다. 즐거우나 불쾌하나의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일차사고 과정(primary process)만 한다. 에고(Ego: 자아): 자아는 현실에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차사고(secondary process)로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이드는 즉각적으로 보이지만 에고는 밥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즉 어떤 요구가 이루어지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린다. 에고 이드의 욕구를 표현하는 만족시키는 정신기제이다. 슈퍼에고(superego:초자아): 사회 규범이 마음속에 내재화가 되면 초자아가 된다. 이때에 양심(conscience)이 사회 풍속에 따라서 내재화되며, 무엇이 되고 싶은 자아 이상(ego ideal)을 꿈꾸게 된다. 즉 어렸을 때에 칭찬 받은 것은 계속하게 되고 벌 받은 것은 안 하게 된다. 이 초자아는 부모나 교사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설명이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중심으로 한 성격형성을 주장하는 구성요소가 된다.⁴⁾

(2) 현상학적 이론

현상학적 이론은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주어진 환경에 개인의 경험하는 것, 즉 현상적인 것에 의해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한다.⁵⁾ 이 이론은 인간 각 개인이 세상에 대해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견해를 강조한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로 자기이론을 주장하는 Rogers와 개인의 구성개념을 강조하는 Kelly와 Maslow가 있다. 이 장에서는 Rogers와 Kelly의 이론을 설명한다.

① Rogers의 자기이론

로저스의 성격이론의 특징은 자기이론이다. 자기이론이란 “나” 라는 특징들에 대한 지각과 타인들과의 여러 가지 생활 측면에 대한 “나” 의 관계성에 대한 지각과 가치관

4) 프로이트 S, 설명환 옮김, 「프로이트 심리학」, 선영사, 1996, pp128-149.

5) 최정훈 외5명, 「앞의 책」, 1995, p290.

들로 구성된 체계로 일관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내가 무엇이며,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의 지각을 포함한다

Rogers는 인간의 성격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다르며, 개인의 주관적 해석을 떠나서 객관적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⁶⁾ 즉 성격이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은 약하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세상을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② Kelly의 자기구성이론

개인적 구성이론은 개인 자신의 대상에 대한 범주화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인간 각 개인이 경험한 범주화된 것을 토대로 성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범주화된 것은 변화할 수 없지만 인간 각자가 그 사건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Kelly는 인간을 능동적이고 여러 가지의 역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창조자로 보는 입장이다.⁷⁾

(3) 특질이론

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에서의 개인차를 기본 특성에서의 차이로 설명한다. 즉 특질이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서로 다르게 행동하고, 사고하도록 하는 각 개인의 내적 성향의 지속적인 면을 의미한다. 여기의 학자로는 Allport와 Cattell이 있다.

① Allport의 특질이론

Allport의 특질이론은 인간이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일관된 형태로 반응하게끔 하는 개인의 신경 심리적 구조이다. 즉 인간이 대인관계의 접근이나 기술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Allport가 말하는 주특질(cardinal trait)은 인간 생활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강렬한 동기인 열정이다. 이 특질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본다. 두 번째 중심특질(central trait)은 주특질 보다는 그 영향의 범위가 제한되나,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에 비교적 넓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책임감, 성실감, 정직함이다.⁸⁾

② Cattell의 특질이론

Cattell은 인간의 성격을 표면특질과 근원특질로 구분하고 있다. 표면 특질(surface trait)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성격이고 근원특질(source trait)은 성격핵심을 구성하는 저변의 구조이다. 또한 Cattell은 목표추구의 효율성과 관계되는 능력특질(ability trait)과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 에너지, 그리고 정서 등의 영향을 주는 기질특질(temperament

6) 최정훈 외5명, 「앞의 책」, 1995, p292.

7) 김정우외 9명, 「앞의 책」, 1992, p312.

8) C.S.Hall, G.Lindzey, 이상로의 역, 「성격의 이론」, 중앙적성 출판사, 1992, p8.

trait)과 인간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역동적 특질(dynamic trait) 등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2. 프로이드의 성격이론

1) 성격의 구조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생활의 영역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러다가 1923년부터는 인간의 성격구조를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세 요인으로 보고, 이 세 요인의 상호 균형 속에서 사람은 생활해 간다고 보았다.⁹⁾

이드(id)는 생물학적 구성요소이며, 성격의 기초로 자아와 초자아의 본바탕을 이루는 인격의 구조이다. 본능적 욕구만족을 추구하는 원자아는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정신에너지의 근원으로 본능(본능)이라고도 말하며 비논리적이고, 도덕관념이 없고, 대부분 인식되지 않으며 무의식적이다. 본능은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원인' 이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환경에 순응시키든지 아니면 환경을 지배하든가 하여 원하는 것을 환경에서 얻어내야 한다. 이러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새로운 심리 기구인 자아(ego)가 형성되어야 한다. 자아(ego)는 심리적 구성요소로,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성격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실행자(實行者)' 로 현실원리(reality principle)에 지배된다. 지적이며 합리적이고 정신적 심상과 외부세계의 사물을 구분한다. 자아는 본능적인 욕구와 외부환경과의 갈등을 통합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생활을 유지하고, 충족의 번식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성격의 세 번째 영역에 속하는 초자아의 일부분은 사회에서 지켜나가거나 요구하는 도덕률로 구상되고 또 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도덕 교육을 토대로 형성된 도덕관념으로 구성되고 있다. 초자아는 현실보다는 이상 세계를 대표하며 쾌락보다는 안전함을 추구한다.¹¹⁾

초자아(super-ego)는 이드로부터 자아가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자아는 자아로부터 발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드, 자아, 초자아 이들 세 가지 성격구조는 상반된 목적을 추구하고,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지만, 평상시에는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 가지

9) Freud, S, 임홍빈,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6, pp112-115.

10) 박운수, 「상담과 심리 치료」, 경성기획, 1994, p108.

11) Hall, Calvin S, 최혜란 역, 「프로이드 심리학 입문」, 1985, pp43-44.

구조가 잘 조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 강력한 자아가 이드의 욕구충족을 보류시키거나, 초자아의 지나친 도덕적 규제를 완화시켜 상충 상태로 해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아가 약해서 제대로 조절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갈등이 야기 되어, 지속되면 성격적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¹²⁾

또한 초자아는 기본적인 도덕법칙과 부모가 갖는 이상적인 것을 믿고 자기 성격의 일부로 만들어 버리는 시기에 형성된다. 초자아는 자신이 자라온 사회의 가치관과 저통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부모와의 동일시로부터 이루어진다.

자기비판이나 반성은 초자아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초자아를 위반하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또는 죄악감이 생기며 이상의 기대가 어긋났을 경우에는 열등감이 생긴다.

2) 성격발달의 5단계

프로이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본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태어날 때에 유아는 제한된 몇 가지 본능, 즉 호흡, 배고픔 등과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본능, 그리고 공격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프로이드는 주로 성적 본능의 에너지를 리비도라 하고, 이 리비도는 일생을 통하여 정해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상이한 신체부위에 집중된다고 주장하면서, 리비도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신체 부위를 성감대라 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성감대의 연령적 변화에 따라 발달단계를 나누어 설명하였다.¹³⁾

첫째, 구강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약 1세까지를 지칭하는데, 이시기의 주된 성감대는 구강이다. 유아는 입, 혀, 입술 등을 통하여 젖을 빨아 먹는 데에 성적 욕구를 충족하며 자신에게 만족과 쾌감을 주는 인물이나 대상에게 애착을 가지게 된다. 후에 이가 나면서 유아는 초기에 구강에 와 닿는 것을 빨므로써 수동적으로 쾌감을 받아들였던 이전의 방식을 벗어나, 음식을 깨물어 씹는 데서 쾌감을 느끼며, 쾌감을 주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각 단계마다 유아가 추구하는 만족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만일 충분한 만족을 얻기 못해 욕구 불만이 생기던가, 혹은 그 시기에 유아가 느낀 쾌감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다음 발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시기에 고착 된다' 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과소충족에 의한 욕구 불만이거나 혹은 과잉충족에 의한 몰두경향은 둘다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방해하는 고착현상을 나타내게 되며, 그 결과 각 단계마다 특징적인 성격유형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만일, 구강기에 인공수유를 하든지 혹은 수유시간을 너무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젖을 빨아먹는 데 있어서 욕구불만을 느끼게 되면 유아의 성격발달은 이 시기에 고착되어 버린다. 또한, 젖을 너무 오래 먹거나 손가락 빨기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에도 고착현상

12) 권육상,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유봉출판사, 2003, p141.

13) 한제선, 「융과 프로이드의 종교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5, pp42-47.

이 일어난다.

구강기에 고착하게 되면, 입술이나 손가락 빨기, 과식이나 과음, 과도한 흡연과 같은 구강적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강적 특성을 지니는 구강기적 성격은 대체로 “두 가지 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구강기적 성격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구강기적 성격이다. 둘 다 의존적이고 유아적인 성격 특성이 공통적이거나, 전자는 보다 순종적이며 애정욕구적인 것이 특징을 이루는 데 반해, 후자는 애정을 요구하는 데 있어 공격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1세 이후부터 약 3세까지를 항문기라 한다. 이 시기에는 배설물을 보유하거나 배출하는 데에서 쾌감을 얻는다고 한다. 생의 둘째 시기인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때 유아는 처음으로 그의 본능적 충동을 외부로부터 통제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유아는 부모로부터 자신의 쾌감을 연기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만일 부모가 대단히 엄격하고 억압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성인이 된 뒤에도 고착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시기에 고착된 결과로 형성되는 항문기적 성격은 대소변이라는 더러운 대상에서부터 정반대로 깨끗한 것을 찾는 이른바 반동형성으로 말미암아 결벽성이 형성된다. 그런데 대변과 관련된 쾌감은 대변배설을 참고 있을 때 생기는 근육의 수축에서 오는 쾌감과 대변 배설을 하고 난 후에 근육이완에서 오는 쾌감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전자의 쾌감에 치우쳐 고착이 일어날 경우 예는 수전노파 같은 인색함이 성격 특성으로 된다. 부모가 대변과 소변훈련들을 적절하게 해주면, 유아는 용변을 보는 전체활동이 이 시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성장해서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한다.

셋째, 남근기는, 대략 3세 이후부터 5세까지를 말하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 주된 성감대가 항문으로부터 성기로 옮겨간다.

프로이드는 이 남근기 동안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국면은 남아가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외디푸스 콤플렉스란 아이들이 이성의 부모에 대한 성적 애정과 접근하려는 욕망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남아는 이 시기에 자기 어머니에게 성적으로 애착을 느끼게 되며, 아버지를 어머니의 애정쟁탈의 경쟁자로 생각하여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은 아버지와의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다. 아이는 그의 우세한 경쟁자인 아버지가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아버지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 성기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러한 상상은 성기가 제거당할 것이라는 공포, 즉 거세불안을 유발한다. 이 시기의 아이는 이 거세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억압하며, 동시에 어머니가 인정하는 아버지의 남성다움을 갖기 위한 기제로서 아버지에 대해 동일시를 하게 된다.

이 시기의 동일시는 아이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같다고 생각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처럼 행동하거나 혹은 부모의 태도, 사고 가치 등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동일시 과력으로 통하여 남아는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며 아버지로부터 올 수 있는 동에 대한 불안도 동시에 해결하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남아는 적절한 남성적 역할을 습득하게 되어 아버지의 도덕률과 가치체계를 내면화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양심과 자아이상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프로이드는 위와 같은 심리적 현상이 여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여아가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성적 애착과 접근의 소원을 거세 콤플렉스라 불렀다. 여아의 경우에는, 남근이 없으므로 남아와 같은 거세불안을 갖지 않는데 그 대신 자기에 없는 남근에 대한 부러운 감정, 즉 남근선망을 갖는다고 한다.

다른 단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 단계에 고착하게 되면 남근기적 성격이 형성된다. 적극적인 남근기적 성격은 과시적이고 서만하고 공격적이며 방종스러운 것이 특징인데, 소극적인 남근기적 성격은 오만하면서도 겸손하다고 한다.

넷째, 잠복기는 외디디푸 콤플렉스를 극복한 후에 아이는 일종의 (평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잠복기에 들어선다. 이 잠복기는 대략 6세부터 시작하여 11세까지 지속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시기의 아이는 성적 욕구가 철저히 억압되므로 앞의 세 단계에서 가졌던 욕구들을 거의 모두 잊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위험한 충동이나 환상이 잠재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이며, 폐아제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므로, 심리학적 발달면에서는 잠복기로서 비교적 평온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인지적 발달에서 볼 것 같으면 결코 소극적인 조용한 시기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의 아동들은 주위환경에 대한 탐색이 활발한, 매우 활동적인 시기이다. 실제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운동이나 게임 그리고 지적 활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에 에너지를 투여하게 된다.

다섯째, 성기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성적에너지는 다시 분출되어 이 전시기에 억압되었던 충동이 무의식에서 의식세계로 뚫고 들어오게 되며 또 이 시기의 청년은 그러한 충동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이성애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잠복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신체에서 성적 쾌감을 추구하고 자기애착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 비로소 타인인 이성으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춘기 이후를 이성애착시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까지 순조로운 발달을 성취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협동의 자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성기기적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이타적이고 원숙하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사람이 다 이성과의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성공적으로 거쳐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권위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고 동일시에 있

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와서 야기되는 성적 에너지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없다. 이로 인해서 권위에 대한 반항, 비행, 또는 이성애에 대한 적응곤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프로이드는 청년기 이후의 개인적 발달과정을 ‘부모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다. 즉, 부모와의 유대나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쉽게 성취되지는 않는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독립은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

인간의 발달단계는 성 에너지의 변화로 활력을 얻어 승화하기도 하고 억압으로 인해 무의식에 쌓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중요성이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론

김진규가 지적하듯이,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출발하였으며 프로이드의 입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프로이드와 관심을 달리했다. 주요 관심은 건강한 인격의 발달에 두고 원본능(id)보다는 자아(ego)에 주된 관심을 두었으며 인격은 일평생을 통한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 에릭슨의 주장이다. 그리고 비록 어릴 적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훗날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수정이 가능하고 인간의 성장은 개인적 욕구 및 능력과 사회적 기대 및 요구 사이의 상호작용의 소산물로 보았다.

이러한 에릭슨의 이론은 정신분석이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인간발달의 낙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위기의 개념을 양극 개념¹⁴⁾으로 대비시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완수해야 할 발달과업을 이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성향을 가진 인간으로 발달해 간다고 보았다.¹⁵⁾ 그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은 각 발달단계에서의 자아의 발달이 원활하게 전개되느냐가 핵심인 바, 각 발달단계는 인간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¹⁶⁾

프로이드의 이론은 개인의 성격발달이 뚜렷한 5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고 보았으나, 에릭슨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아 8단계에서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인간의 성격이론에서 프로이드는 초기 아동의 경험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에릭슨은 인간의 전 생애를 총망라했을 뿐 아니

14) 김애순, 「청년기 갈등과 자기 이해」, 시그마프레스, 2005, p51

15) 김진규, “Freud와 Erikson이론에 따른 성격형성에 관한 고찰”, 장안대학교 장안 논총, 2004, pp196-197.

16) 안범희, 「성격심리학」, 하우, 2001, p127.

라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⁷⁾ 5단계까지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발달 단계를 개조한 것이고 나머지 3단계는 5단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각 발달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¹⁸⁾

1단계는 ‘신뢰감 대 불신감(basic trust vs. basic mistrust)’으로 유아기(0세-1세)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유아는 자기를 돌봐주는 어머니와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주로 수유과정 중 모친과의 동일화에 대한 기초를 발전시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는 어머니가 일관성 있고 안정되게 자신의 생태적 욕구를 적절히 채워주면 양육자를 신뢰하게 되며, 반면에 적절한 반응이나 돌봄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신감이 형성되게 된다는 점이다.

에릭슨이 이 시기를 인생의 초기단계 중 가장 비중 있게 취급했던 이유는 발달 특성으로서의 기본적 신뢰감이 인생 후기에서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물과 대인적 신뢰감이 결손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감의 중요성과 함께, 상대적인 불신감 또한 전혀 쓸모없는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에릭슨은 어느 정도의 불신감이 충실한 성숙함을 만들어 내는 필요 요건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두 요소 사이의 균형 중 신뢰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세해야만 정상적인 발달이 된다.

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와 혐오(autonomy vs. shame and doubt)’로 2세에서 4세의 유아가 이에 속한다. 이 시기의 유아발달에는 사회적인 기대나 압력과 자신의 의지 사이의 조절과 적응력이 발달특성을 결정짓게 된다. 프로이드적 시각에서 보는 이 시기의 유아는 괄약근을 경직시키거나 이완시켜 대변을 보유하거나 배출한다. 또한 보행에 필요한 근육발달이 이루어지고, 음식을 먹으려 하며 언어의 표현에서 자율성이 나타난다. “내꺼, 우리 엄마, 나, 싫어” 등의 자기수장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사실 유아에게 있어서 통제와 조절의 가능성은 심리적인 노력이나 능력에 달려 있다기 보다는 신체적 능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initiative vs. guilt)’으로 4세에서 5세의 아동이 이에 속한다. 프로이드적 시각에서는 남근기, 외디푸스 콤플렉스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사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적인 차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이 시기의 주도성 대 죄책감이라고 하는 심리 사회적 위기는 지적 호기심과 정서적 발달간의 밀접한 관계를 부각시킨다.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의 아동은 목표 지향적 생각과 상상적이거나 모방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이 심리적 특성을 부정적으로 해결하면 압도적인 죄책감을 형성해 버린다. 아동은 자신의 적극적인 시도가 사회적 금기에 배치된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 때로는 상제적 통제를 받게 되

17) 김진규, 「앞의 논문」, 2004, pp201-203.

18) 김미희, “서정인 소설의 연대별 특성 연구 :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론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p17-21.

는데 이로 인하여 죄책감과 불안감이 형성된다고 본다.

4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으로 6세에서 11세 사이의 학동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아동이 학교에서 갖는 학습활동 때문에 모든 성적 심리가 숨어들게 된다는 의미에서 프로이드는 잠복기라고 했다. 에릭슨은 이 시기가 자아성장의 전환기로 본다. 기초적인 인지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게 되며 동시에 또래들과 어울려 또래문화를 배우고 적응하는 사회적 훈련을 갖게 된다. 이러한 순조로운 학습과 적응은 근면성과 성취감을 발달시키지만 학습이나 놀이에서 실패하거나 배제되면 부적응감이나 열등감으로 발전된다.

5단계는 '정체성 대 정체성 혼미(identity vs. identity diffusion)'로 12세 이후 20세가량에 걸쳐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성장만이 아닌 생식기관의 성숙과 2차 성징의 출현,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스스로에게 성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해주며 또한 성 역할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해준다. 하지만 급소한 간체적 성장과 새로운 성적 변화의 경험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회의 없이 수용했던 자기존재에 대하여 '당황한 탐색'을 하게 만든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의 과정과 그 노력은 어떤 문화에서든지 인정하는 일종의 제도화된 '심리 사회적 유예기간(psycho-social moratorium)'을 허용한다. 에릭슨은 이 시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은 초기 단계의 기초적 신뢰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이 이후 단계에서의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바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체감은 사회로부터 개인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정체감의 탐색은 통일된 전체를 이루기 위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데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자아개념의 확립을 뜻한다. 이 과정은 가족이 약화되고 공동체의 전통이 실종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역사적 시기에 더욱 어려워진다. 사회변화가 급격한 시기에 구세대는 신세대에게 더 이상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은 새로운 신체상을 수월하게 확립하지 못하는 내부의 "생리적 변혁" 뿐만 아니라, 정체감이나 자기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숙고하는 "심리적 위기" 와도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연구 중 성숙에 관한 연구보다도 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6단계는 '친밀성 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으로 청장년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 후에 사람은 직업의 선택, 결혼상대자의 선택, 사회적 윤리와 정치사상 등의 비교적 항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환경적 요구에 직면하며 이러한 것들은 이 시기의 발달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된다. 청장년기에 있어서 독특한 과정은 자기 자신의 가족성원 이외의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친밀성은 이전의 발달 과제인 부끄러움, 죄, 열등감, 소외감 등이 확립된 후에 나타나는 개인적 정체감이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공유된 정체감(shared identity)'으로 표현된

다. 이는 성적 성수고가 성숙한 도덕성에 연결되는 새로운 형식의 애정이다. 에릭슨은 발달의 기본 원리에 표현되듯이, 앞서 언급한 전 단계들에서의 파업들이 충분히 발달했을 경우에 보다 쉽게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거절하거나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위협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힘을 파괴하는 경향을 포함한다.

7단계는 ‘생산성 대 침체감(generativity vs. stagnation)’으로 약 30세에서 50세까지의 흔히 인생의 중년기로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자기 자신의 사상과 신념 체계 및 가치를 자신의 생활 뿐 아니라 다른 이의 생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성인기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생산하여 양육하고 교육하는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 공헌하며 또한 직업적 성취, 학문적, 예술적 업적 등을 이루어 간다. 또한 자기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사회 활동을 통하여 자녀 양육과 같은 생산성의 증진을 이루어 간다.

성인 중기가 생산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규범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침체감이란 심리적 성장이 결여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의 에너지는 기능이 자기 확대나 개인적 만족이라고 하는 목적에 편중되게 되면 타인을 돌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떨어지며 심리적 정체감(stagnation)이 발생하는 것이다.

8단계는 ‘통합성 대 절망감(integrity vs. despair)’으로 인생의 마지막 시기인 성인 후기에 해당한다. 노년기에는 서서히 진행되는 신체적인 노쇠, 즉 청력 및 시력의 저하, 운동기능의 저하 그리고 각종 노환 등의 노인 자신에 대한 욕구불만과 상실감을 높하게 된다. 또한 직업에서의 은퇴,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 등이 공상과 무력감과 실망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사회적 커뮤니티로부터 어느 정도의 평가 저하는 자기의 가치에 대한 절망을 주는 원인이 된다.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의 실패를 보상하는 아무런 희망도 갖고 있지 못하게 때문에 죽음을 절망적으로 두려워하기도 한다.

절망의 반대 방향은 통합이다. 에릭슨은 통합이란 자신의 인생을 실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자기의 인생과 개성이 개인적인 만족과 위기의 축적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인식하며,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부정하거나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고, 전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거의 성패를 성공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생의 의미를 폭넓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통합이란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교차시키며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생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견해를 발전시키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확립시켜 주고, 보다 보편적인 도덕적 방향성을 연결해 나가는 일이다. 이상으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맞추어 서정인 소설을 분석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정합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Ⅲ. 에릭슨과 프로이드 심리 발달 이론 비교

1. 에릭슨과 프로이드 이론과의 차이점¹⁹⁾

에릭슨은 인간발달 이해와 관한 자신의 생각을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²⁰⁾ 개념을 현대 사회학적, 인류학적, 생물학적 자료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네 가지 근본적인 면에서 프로이드 이론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에릭슨의 업적은 원초아(id)로부터 자아(ego)로 그 강조점을 돌렸는데 이는 프로이드가 그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부분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즉 말하자면, 에릭슨은 인간의 행동과 기능의 기초로서 원초아보다 자아를 더 강조했다. 그는 자아를 성격의 자율적 구조로 간주하였고, 자아는 원초아와 본능의 발달을 평행하게 하는 사회적 발달(social adaptive development)과정을 따른다고 한다. 자아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인간성 개념은 인간이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중전의 정신분석적 사고로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둘째, 에릭슨은 한 개인의 그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그 가족이 위치한 역사적 상황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소개했다. 프로이드는 부모가 아동의 성격 발달에 주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진 반면, 에릭슨은 아동의 장기 형성되는 심리·역사적 환경을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자아발달이 사회 제도와 변화하는 가치 체계의 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례로 연구했다.

셋째, 에릭슨의 자아 발달에 대한 이론은 인간의 전 생애를 총망라하고 있다. 즉 유아기로부터 사춘기를 거쳐 성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하여 프로이드는 초기 아동기 경험의 효과에 한정하고 남근기 이후의 발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심한 관찰을 하면 첫 다섯 단계에서 두 이론가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넷째, 프로이드와 에릭슨은 심리·성숙 갈등의 양상과 그 해결책이 서로 다르다. 프로이드의 야망은 정신생활의 무의식적 자아의식과 존재를 해명하고 초기 외상(trauma)이 성인기에 어떻게 정신 병리를 야기 시키는가를 설명하려 했다. 반대로 에릭슨은 생활에서 오는 심리·사회적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 능력에 관심을 가졌다. 이와 같은 에릭슨의 이론은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아 자질(ego qualities), 즉 덕성(virtue)에 치중한다. 이 차이점은 에릭슨의 성격 구조와 발달 개념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인간을 만약 그의 본능적인 추구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인류는 멸망으로 유명 지어진다. 프로이드의 숙명론적 경고는 에릭슨의 모든 개인적·사회적 위기는 오히려 위기를

19) Larry A. Hjelte & Daniel J. Ziegler, 이훈구 역, 「성격심리학」, 법문사, 1983, pp145-147

20) David R. Shaffer, 손길연 역,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p54.

극복하고 성장으로 유도하는 도전감을 갖게 한다는 낙관적 견해에 도전을 받는다. 에릭슨은 인간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 가 그리고 초기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이것이 어떻게 그가 성장한 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지를 앞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에릭슨은 스스로를 정신분석적 사고의 주류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 콜스(R. Colls)는 “에릭슨은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 연구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근본원리에 충실했으며 프로이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엄격한 프로이드파라고 말할 수 있다” 고 말한다. 그러한 에릭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격·심리학자들은 에릭슨은 인간의 적응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힘을 강조하고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다는 견해를 갖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주기에 대해 프로이드와 전적으로 다른 견해의 이론적인 추구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2. 에릭슨과 프로이드 이론과의 유사점

프로이드의 이론과 에릭슨의 이론은 차이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프로이드와 에릭슨은 성격의 단계가 미리 예정되고 그 순서가 불변하는 것으로 본다. 에릭슨은 프로이드가 신체부위에 초점을 두고 발달단계에 대하여 논한 것을 확대시켜 개인이 사회와의 접촉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기에 초점을 두고 성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로이드의 이론을 확대시켰다. 또한 에릭슨은 생물학적 그리고 성적 요소가 나중의 동기적 및 개인적 성격 형성에 기초가 됨을 인정하고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적 무형(id, ego, super ego)를 수긍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이드의 이론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일치가 서로 중복되는 데도 많은 성격학자들은 에릭슨의 이론적 노력이 프로이드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²¹⁾

IV. 결 론

1. 연구의 결론

인간의 성격발달에 대한 고찰은 심리학의 주된 분야로 프로이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인간 발달의 각 단계에서 뿐 만 아니라 산업심리, 이상행동, 범죄 심리, 유아심리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고 있다. 그 중 심리학의 기초

21) Larry A. Hjelle & Daniel J. Ziegler, 「앞의 책」 1983. p147.

가 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성격이론과 에릭슨의 사회 심리적 성격이론을 통해 인간 행동의 원인을 찾고 특히 유아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만이 가지는 특유의 성격을 파악하고, 특히 에릭슨을 중심으로 프로이드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프로이드는 어린 시절의 꿈이나 사고, 기억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론인데 비해, 에릭슨의 이론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아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이론이다. 그러나, 프로이드가 원초아를 중시하여 방어기제로 표출되는 여러 행동적 증상 뒤에 숨어있는 원초아의 모습을 파악하려고 애쓴 반면에, 에릭슨은 원초아를 소홀히 한 한편, 인간의 현실적 행동에서 보여지는 모습 즉 자아의 분석에 치중하였다. 다시 말하면, 프로이드가 해저에 비유되는 무의식의 흐름을 중시했다면, 에릭슨은 즉 해면에 비유되는 의식의 흐름에 관심을 보였다.

둘째, 프로이드 이론은 다섯 단계에 걸쳐서 완성되는 성격발달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세 단계에 걸쳐 성인이 되면, 개인의 성격형성은 종결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 이후에는 성격이 변용되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에릭슨은 전 생애를 계속적인 발달의 단계로 보고, 이를 8단계로 구분하였다. 에릭슨에 따르면, 성인이란 발달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발달과정의 한 상태에 해당된다.

프로이드는 리비도가 부족되는 성감대의 부위에 따라서 세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면 발달의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가능하지만,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단계에 고착된 성격이 형성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에릭슨은 자아의 발달에 따라 전 생애를 8단계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프로이드 이론의 다섯 단계 이후의 세 단계가 첨가된 셈이다. 각 단계별로 극복해야 할 위기와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성취되었을 때와 실패했을 때를 양극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셋째, 출생 후 초기에 아동이 겪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두 이론이 일치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영아기에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몸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입의 빠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며, 에릭슨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일이 된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을 확장하여 일생을 거쳐서 전개되는 심리적 사회적 발달은 8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이론에 대하여 심리 사회적 차원을 첨가하여 성격발달 이론을 발전시켰다. 프로이드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본능 즉 리비도(libido)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반면,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8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각 단계는 인간의 생리적 성숙과 동시에 심리적 '위기'를 수반하는데 인간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인간 성격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참고 문헌

참고 도서

- 권육상,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유헌출판사, 2003.
- 김애순, 「청년기 갈등과 자기 이해」, 시그마프레스, 2005.
- 김정우의 9명, 「심리학 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92.
- David R. Shaffer, 손길연 역,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박윤수, 「상담과 심리 치료」, 경성기획, 1994.
- C.S.Hall, G.Lindzey, 이상로의 역, 「성격의 이론」, 중앙적성 출판사, 1992.
- 안범희, 「성격심리학」, 하우, 2001.
- L.A.젤리, D.J.지글러, 이훈구 역, 「성격 심리학」, 범문사, 1995.
- Larry A. Hjelle & Daniel J. Ziegler, 이훈구 역, 「성격심리학」, 범문사, 1983.
- 최정훈의 5명, 「인간행동의 이해」, 범문사, 1995.
- 프로이트 S, 설영환 옮김, 「프로이트 심리학」, 선영사, 1996.
- Freud, S, 임홍빈,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6.
- Hall, Calvin S, 최혜란 역,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1985.

참고 논문

- 김미희, “서정인 소설의 연대별 특성 연구 :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론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김성열, “Erikson 성격 발달이론의 타당성에 관한 일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김진규, “Freud와 Erikson 이론에 따른 성격형성에 관한 고찰”, 장안논총 제 24권, 2004.
- 박노선, “에릭슨의 사회심리발달 8단계 이론의 분석 (Analysis of E. Erikson's life Cycle Theory)”, 신학과 현장, 1998.
- 박영희, “여성 대상 관계에서 Erikson 발달이론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허운행, “에릭슨의 자아발달이론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정립”, 영남신학대학교, 2000.
- 한재선, “융과 프로이트의 종교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5.